

3조원대 교육청 금고를 잡아라

전북도교육청, 내년부터 4년간 금고 운영할 금융기관 공개경쟁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교육금고를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금고 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

항 등 관련서류를 10월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금고지정 신청서는 10월 18일 접수하는데 도교육청 6층 재무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어 10월31일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한 뒤 11월 1일 금고를 지정하고 이후 20일 내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교육금고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의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3358백 75억여원에 달한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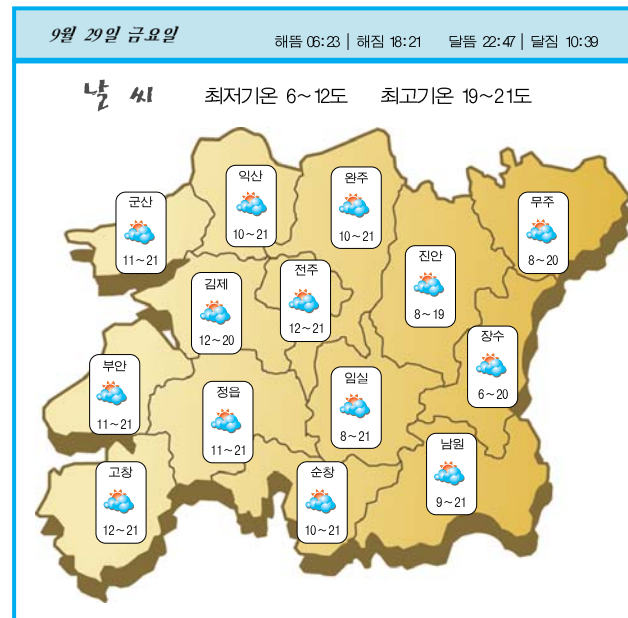
전북대, 추석 연휴기간 교내 주차 무료 개방

전북대학교가 추석을 맞아 교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기간은 9월 30일 자정부터 10월 10일 오전 6시까지이며 정문, 동문, 북문, 중앙도서관 앞문, 박물관, 수의·치대 입구 등 6개 통제소를 모두 개방해 도민 및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매년 명절과 어린이 날 등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거점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가람 이병기 · 소설가 최명희 청년 문학상 수상자 시상

전북대학교, 고등부 · 대학부 부문 297명 756편 응모 경합 벌여... 국내 최대 규모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신문방송학과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돼 9월 27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미식'을 쓴 임대섭(건국대 국어국문 3년) 씨가, 고등부에는 '오도독뻐'를 선보인 김상희(고양여고 1년) 양이 선정됐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돼 9월 27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왼쪽 두번째부터) 임대섭, 김상희, 송가을해, 오태연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합을 벌였다.

시 부문 심사는 전정규, 김유석, 오창렬, 문신 위원이, 소설 부문 심사 이광재, 최기우, 서철원, 김소운 위원이 맡아 주었다.

전북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메세나 자원 적극 활용의 일환으로 상금을 인상, 이번 문학상은 총상금 800만원 규모로 확대 운영됐다.

박준호 문학상 운영위원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은 "전년보다 많은 작품들

이 응모됐으며 사회적으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려는 모습이 보였다"고 평했다.

이 총장은 "1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그간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들을 발굴해 내며 전북대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최명희 작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많은 문재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장애인 복지와 인권·가족복지 분야 연구 성과 인정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 판에 등재됐다.



표적을 뿐 아니라 국내 학술지 및 저술활동에도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2014년 연구논문 분야에서 전북대 인문사회 분야 우수교수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에 신재보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장애인복지와 인권, 가족복지 등을 주로 연구하는 김 교수는 최근 SSCI와 SCOPUS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

표했다. 2016년에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전북대학교 BK21 플러스 지역공동체 역량증진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사업팀 팀장으로 활동하며,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역량 및 수월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무주군 구천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준공

무주군 구천초등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공사 준공식이 28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교육지원청 반정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학생, 학부모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희망풍선 날리기 등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돼서 기쁘다"며 "우리 아이들의 꿈이 새롭게 단장한 유치원에서 피어나고 학교 운동장 천연 잔디 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구천초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5,700㎡)은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군비(1억 5천만 원) 포함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돼 육상 트랙공사와 다목적 농구장,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들이 설치됐다.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이 좋아져서 신난다"며 "앞으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엄마(빠)랑 배드민턴도 치고 달리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많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전라북도 교육특구 포럼

2017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2017. 10. 16. (일)

| 13:00~18:00 |

오펠리스 웨딩홀

- ▶ Session 1.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 ▶ Session 2.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는 고등학교 정책
- ▶ Session 3.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